

이달의 성구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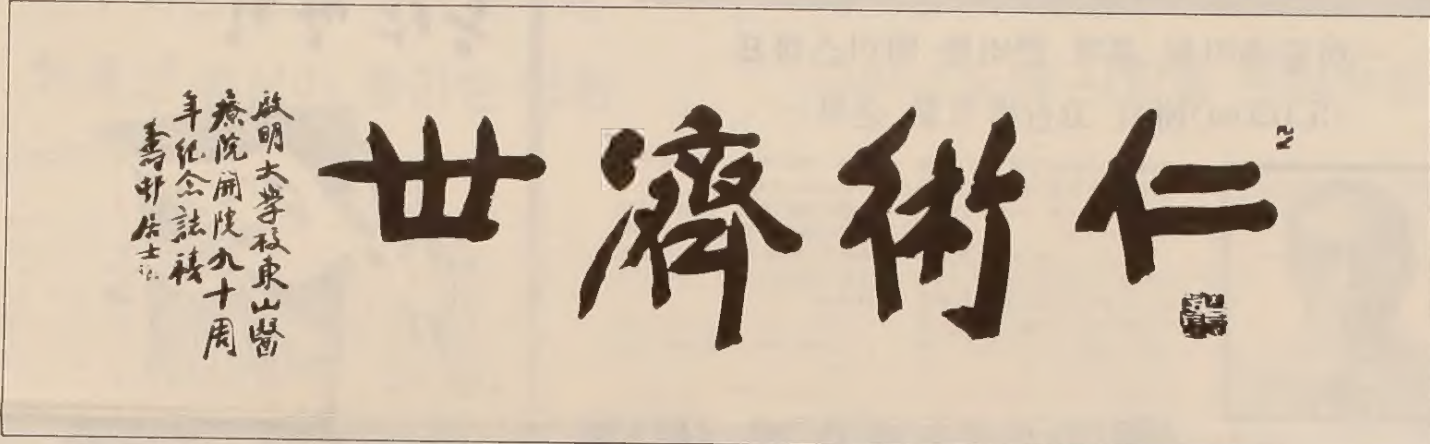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소식

발행인 겸 편집인 송준영 인 쇄 인 김상열 대구직할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252-5101(교관 2382)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NEWS

동산의료원 개원90주년



취호: 서경보(徐鏡普)

- 1921년 9월 20일
- 북경대 문학원 중국어언문학회 조
- 제30회 국전 서예부문대상
- 경북도전·대구시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부위원장
- 대구·경북서예가협회회장
- 영남중국어문화회회장
- 현 영남대 명예교수 (중문학과)



의무부총장겸 송준영 동산의료원장

1899년 10월1일 약전골목 제 일교회에서 제중원으로 시작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오늘로서 창립 9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고도의 인술을 베풀어 인간생명의 존귀함을 몸소 실천하면서 육신의 고통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함께 구원해 온 동산의료원은 명실공히 지난 90년 동안 나라 의료계를 선도해 왔으며 그 업적들은 오늘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근대 의학전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눈부신 발전은 수많은 선배님들의 투철한 설립이념구현의 정신과 조국 근대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된 선구자적 개척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동산인들은 송고한 그정신과

헌신적인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월과 함께 회식되어져만 가는 선각자들의 그 희생정신을 재무장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에 개원 9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이시점에서 동산의 기본정신을 재음미 해보고 현실과 미래에 맞도록 기본정신

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는 모름지기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초대원장 존슨박사가 그러하였고 2대원장 플레츠박사가 역시 그러하였으며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에 의해 동산의 숨결과 맥박들이 이어져오면서 이 정신은 끊임없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미래 상황에 맞도록 구체화 될 뿐입니다. 초창기 구제를 통한 사랑과 봉사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사랑은 소외된 곳에 관심을, 무질서한 이해갈등의 현장에서 양보를, 억눌리고 약한자에 대한 포용을, 이기적 개인주의가 만연한 곳에서 협동을 수준높은 의학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를 통한 봉사 및 민주정신과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동산의 기본정신을 재무장 할 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정신 선구자적 개척정신

의 실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설립이념인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정신은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곳에 사람을 베푸는,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사람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는 자신까지 희생하

그러나 고도산업사회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인간성 상실과 따뜻한 온정과 사랑의 결핍이 사회전반에 만연하여 우리 기독교인 마저 이에 휩쓸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우리의료원의 기본정신이어야 합니다. 단지 현실과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둘째, 선구자적 개척정신은 언제나 고독과 고통을 각오하여야 하지만 또한 이정신은 미래를 임태한다는 창조자적 기쁨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구한말 민족의 앞날이 혼미하고 기아와 절망의 수렁속에 빠져있을때 이지역에 의료선교의 씨앗을 들고와 벽안의 외계인으로 구경거리와 때로는 죽

음의 공포를 감내한 위대한 의료선교사 존슨박사의 개척정신과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언제나 남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앞서겠다는 선구자적 정신으로 의학에 대한 사명을 다해온 선각자들의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교육·연구·진료·경영등 모든분야에 있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나아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위대한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선구자적 개척정신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하겠습니까.

이를위해 우리 1,400명 교직원 모두는 각자가 뚜렷한 신앙관, 세계관, 그리고 직업의식을 정립하고 굽히지 않는 노력과 의지로 이시대에 우리들에게 부과된 이 소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내야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동산가족여러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오늘의 이 동산의료원 개원 90주년은 「동산백년」을 멋있게 장식해야 할 마지막 거보를 내딛는 시점이요 또 제2세기를 열기위한 영광된 도약을 이루어야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어제의 번한 감격을 되새기면서 동산의 기본정신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결의로 더욱 분발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산의료원 모든 교직원 및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기원드립니다. 1989년 10월 1일

찬란한 의료선교역사 『동산90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오늘로서 개원 90주년을 맞게 되었다.

1899년 10월 1일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의료선교사 Dr. Wood Bridge Johnson 을 통해 이지역에 의료선교의 씨앗을 뿌린지가 꼭 90주년을 맞은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목재의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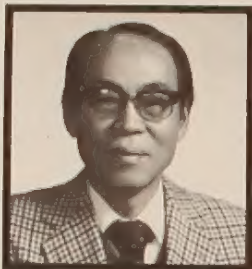
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함께 치유해 온 동산의료선교의 역사는 찬연히 빛나는 금자탑으로서 반도에 우뚝 솟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동봉로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나갈 것이다.

한편 9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동산축제」가 10월 3일 성서 캠퍼스에서 전교직원이 참석하

는 가운데 「체육대회」와 「명랑오락회」 「천교의 시간 및 경품권 추첨」 등으로 펼쳐지며 10월 4일 오후 2시에는 원로퇴직교직원 및 지역사회유지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동산의료원 개원 90주년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예산과에서는 개원 90주년기념 의료원 홍보용 화보를 발간했다.

요산 정재홍 교수 소천

—히말쉴리봉 공격 준비중 베이스캠프 (5,020m)에서 고산병으로 순직—



요산 정재홍 교수(병리학)가 14일 새벽 1시30분 (내팔 현지시간)순직, 지난 9월 26일 계명대학교장 (장예위원장: 송준영 의부총장겸 동산의료원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계명대학교 개교3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계획 시도된 「히말쉴리봉 (7,893m) 등정」의 등정대 대장인 고 정재홍 교수는 11명의 대원을 이끌고 지난 8월 6일 장도에 올라 히말쉴리봉 기슭 5,020m 지점에 설치된 베이스 캠프

프에서 남능암벽을 넘어 히말쉴리 주봉을 공격 준비중 고산병 증세로 이날 순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대원들은 등정을 포기하고 지난 22일 내팔군용 헬기편으로 유해를 카드만두에 안착, 이어 24일 김포공항을 거쳐 25일 새벽 본인 영안실에 모시고 오전 8시30분 많은 교직원의 오

열과 애도속에 입관예배를 가졌으며 26일 오전 10시 가 죽친지 및 모든 계명인들과 동산인들의 깊은 애도속에 대명동 캠퍼스 노천강당에서 계명대학교장으로 영결식을 가졌다.

장지는 고인의 선산이 있는 경북 상주군 의서면 연봉리이다. <고인의 약력 7면 참조>



특정진료제도 시행

9월 27일 부터,

진료접수시 소정양식에 따라 신청

그동안 오랫동안 언급검토 되어오던 「특정진료제도」가 드디어 지난 27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특진제」란 본원에 래원하는 환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교수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특정진료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수들로 하여금 의학연구와 실습에 대한 의욕을 추구하고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원에서는 지난 5월 18일 「특진위원회」(당면직 위원장: 박영훈 병원장, 위원: 위원장외 10명)를 발족시키고 그동안 국내유수병원의 특진제도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또한 본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진료규정」 「특진요율」 「특진절차」등을 최종 확정 짓고 지난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진의 대상은 일반 및 의료보험환자로 제한

하고 특진비 적용범위는 소정의 특진등록료(초·재진 공히 1,000원)와 진료행위에 한하는 데 특진비 총액은 당해년도 진료수입실적의 10% 내외로 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게 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아울러 특진절차로는 진료접수시 소정양식에 진료신청과 및 희망교수를 지정신청하고 특진비를 접수하면 된다. (예약접수도 가능)

한편 래원환자들의 특진에 대한 이해와 절차에 대한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1층 외래입구에 「특진안내 팸플릿」을 비치하고 각종 안내문 및 안내판(특진안내, 특수클리닉안내, 1차진료안내) 등을 부착하였다. 기타 상세한 것은 외래내과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면 된다.

또한 외래각과 간호원실에도 해당과의 각종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의과대학 「태계축전」성황리 개최

의과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1989년 9월 6일~9일까지 의대 건물 및 의료원 잔디밭에서 「제5회 태계축전」이 재학생, 교수 등등, 학부모등 많은 교내·외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6일 의료원 잔디밭의 전야제를 시작으로하여 탁구대회, 보울링대회, 퀴즈대회, 연극공연 초청농구경기, 교수·학생 친선 테니스대회 8일의 오래 범박대회, 요지경 진기명기 및 족구, 「해발전소 과연 안전한가」라는 공개토론회, 잠거리박사의 「젊은 의학도들에게 바란다」란 강연회 9일의 「Gold Rush」 영화상영, 바둑대회, 초청강연회를 비롯하여 기초의학전시회가 열렸으며, 특히 축제가 간중에서 학생회에서 주관하여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포도

주 공장의 포도납품 거절로 안타까워 하는 포도농가 돕기운동을 벌여 많은 교직원들의 따뜻한 성원에 농민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매우 뜻있는 일로 높이 평가 할만하다.

동산간호전문대학 제58회 가관식

동산간호전문대학 제58회 가관식이 지난 9월 21일(목)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전산초 학생, 김상열 재단이사장, 신일회총장, 송준영 의료원장 등을 비롯 약 700명의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있었다.

이날의 가관식에는 총79명의 1학년생들이 참여하였다.

동산만평

박명호



문을 연지 90년 얼마만의 축제인가?

가정의학과 진료안내

1차진료의 기능을 가져 일단 진료후 본원의 모든과로 전과가 가능

가정의란?

가정의는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전체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의사이다.

전인적 의료를 제공

질병자체 뿐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전체를 치료한다.

조정자의 역할

진료과의 세분화·전문화, 의료시설의 복잡화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이를 도와준다.

진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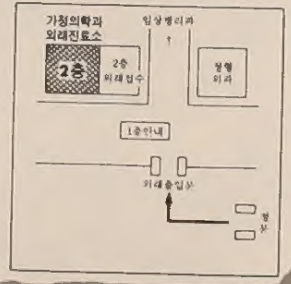
가정등록 본원 가정의학과에 가족전체의 인적사항 및 병력을 기록

진료시간

오전 9시~오후 5시(토요일은 오전 12시)

응급연락

등록된 가정에 응급환자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시 가정의학과 당직실(전화 252-5101 (교) 2263, 2264)로 연락.



재단법인 동산의학연구재단 기금출연(9월)

- 손소인 동문(마산 고려병원 마취과장) 200,000원
 - 김운원, 김현철 부교수(내과), 조원현 부교수(일반의과), 김정금 동문(김정금 이비인후과원장) 각 100,000원
- 뜻있는 분들의 기금 출연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간사 우병현(기획)

- 에산과장)
- 주소: 700-310 대구직할시 중구 동산동 194
- 전화: 252-5101(원내2381)
- 무통장입금안내(입금시 성명을 기재바람)
- 대구은행 (081-01-00150-0)
- 조흥은행 (809-1-019096)

주차장관리 효율화에 안전

—본원 수진자및 내원객의 주차 편의제공—

본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폭주함에 따라 인근시장 상인차량, 인근사무실차량, 기타 병원주변 용우차량이 본원 주차장을 이용,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어 정차 본원 수진자및 내원객들의 차량이 주차할곳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주차방법 개선을 위해 주차카드를 발급하여 주차시간을 기재하고, 나갈때 확인하고 홍보하는등의 방법으로 장시간 주차하는 무용차량을 색출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사택지역은 외부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정문은 나가 는 차량만 일방통행 하도록 하면 더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리자들의 이야기이다. 과 임통제로 빈축을 사는일이 없 는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래원객도 많다.

주차관리자를 장기간 선발 활용해야 할 경우 본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대책이 요구된 다.

Board Chairman
(cell) 2nd Church, Taegu
→ Division of Pharmacy, Hyeonmyeong
Hosp. Taegu

His father
was a good
friend of
our
father.



<중 상 히>
신 일 히

먼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개원 90주년을 축하하며, 겹쳐서 의료원장을 위시한 1,300여 동산인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0년 동안 동산의료원은 소규모의 동산병원에서 일년에 외래환자 40만명 그리고 입원환자(재원일수)가 25만명이 넘는 대규모의 의료원으로 바뀌었으며, 대구를 위시한 경북지역의 지방인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본인은 동산의료원의 개원 90주년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세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사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광혜원이 1885년 서울에 설립된 후, 일반병원으로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동산기독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이 1899년 10월 1일 미국 북장로교파에 의해 이곳 대구에 설치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동산기독병원이 고고의 소리를 발한 후 지금까지 90년간 한국의 의료사업 특히 대구를 중



<재단 이사장>
김 상 렬

심한 영남지방의 의료사업과 기독교 선교사업에 이바지한 공은 실로 크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동, 경주, 포항 등지의 지방 기독교 병원을 설치하고 도왔으며 또한 많은 지방 병원들과 모자결연을 하여 육성 발전에 힘써 왔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기독교적 사명감을 함께 해 온 계명대학교와 합병함으로써 「동산의료원」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고 의과대학과 대학원의 설치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임상적인 치료분야에 치중되어 오던 것이 의학의 학술적인 연구분야에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되어 명실 상부한 대학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되었으며 연구와 임상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의료활동의 성과와 명성이 학계나 세상에 급속도로 알려지고 있음을 동산의료원의 한 가족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로 발돋움하는 의료원 연구하는 교수의 의과대학 기독교 정신이 충만한 병원

둘째로는 연구하는 교수와 의사의 의료원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연구하는 의사가 적은 병원은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동산병원이 계명대학교 의료원으로 된 후에, 좋은 교수님들이 병원으로 많이 오셨으며, 의과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에 의해 좋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동시에 전국 규모의 의사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훌륭한 제자들이 키워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산의료원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자들이 더욱 연구에 정진하여, 최첨단 의료기술을 구비한 의료연구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제는 동산의료원이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세계속의 기관으로 발돋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좁아지고, 국가간의 교류는 잦아지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은 계속 지역사회의 병원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대학의 의과 기관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세계 속의 동산의료원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동산의료원의 개원 90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화합, 단결 자기일에 충실, 주인의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앞서 가기 위하여 그간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수련을 거듭해 왔으며 시설면에서도 암치료센터를 비롯하여 최첨단 의료기인 MRI를 비롯한 우수한 고급 기자재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치료활동을 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면에서도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1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전국 수위급을 차지하고 있음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동산병원과 더불어 1924년에 설립된 간호학교도 현재 전문대학으로서의 전국에서 가장 충실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발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랜 역사의 동산병원은 현재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의료원과 대학 그리고 법인이 일치되어 가족적인 유대감으로 100주년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하며, 자기 일에 더욱 충실하고 주인의식과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정진교육을 통하여 환자 입장에서 서서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며 전구성원이 화합, 단결하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개원 90주년을 맞이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동산병원을 창설하신 W. B. Johnson박사와 역대병원장님, 의료원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리며 숭고한 정신으로 지금까지 본 의료원을 발전시켜 온 분들의 분을 받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Little did I realize when I visited my high school classmate Donald Fletcher in 1933, whose father was then the Supt. of Dongsan Hospital, that this city and this institution would be the main focus of my entire life's work! After a year in China our family arrived in Taegu in December, 1948, and moved right into the same house we are still living in. Dr. R. K. Smith was then Supt. of the hospital, having taken over just a few weeks earlier on Nov. 26 from Elder Moon Young Bok who had been acting Supt. after the surrender of Japan. Others here were Dr. Whong Yong Woon who was such a tremendous help to me in those early years, and Dr. Park Choon Ki who was one of the key doctors while Dr. Chung Pock Tuk (later longtime Supt. of the Andong Sungso Hospital) was a resident and Dr. Chung Chai Hong an interne. Among the business staff were Kim Bo Eun, my close associate for so many years, Elder Suh Sang Hoon in the X-ray Dept., Mr. Kim In Bae and Mr. Chung Sang Rok. There may well be others I should mention, as all of them were so very gracious, kind and helpful to me. Dr. Smith retired and retu-

A Few Recollections of My 40 Years in Taegu

rned to the U.S. in June, 1949 and I was put in charge of the hospital. With my lack of experience I surely needed all the help that I could get! The Korean War broke out just a year later and changed everything. Korea was utterly devastated and endured untold suffering, yet as we all know the South made a truly miraculous recovery and is today regarded throughout the world as a shining example of modern development. It came about through the hard work, sacrifice, and tremendous ability of its people. Dong San Medical Center has shared in this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merger with Keimyung University and the establishment of our College of Medicine. My first full year here in 1949 our total budget came to the equivalent of \$35,000, whereas today it is \$40 million! In the early days a great deal of the work (sometimes over 30%) was of necessity provided on a



Associate Medical Director
Howard. F. Moffett

charity basis as the people were in such deep poverty; today with a national medical insurance program covering the entire population this need is fortunately very minimal. There are many other problems which the present administration has to cope with however, especially as the cost of providing medical care, salaries, etc. have all risen so high,

but the primary purpose of the institution to reach out to help people in the name of Christ is unchanged. Outreach work has always been important, especially through the voluntary medical and evangelistic work of the hospital preaching society founded by Dr. Fletcher in 1921. All hospital staff and workers were members and all contributed as they were able in giving both time and of their meagre financial resources to help in the support of this work. A branch hospital was opened in Andong in 1910 by Dr. Fletcher, but later that same year he and Dr. Johnson changed places because of Dr. Johnson's failing health. After the Korean war Dr. Kim Chong Won founded what is now the "Good Samaritan" Presbyterian Hospital in Pohang with which we have such a close connection, and in 1965 a satellite hospital was established in Kyungju. Dr. Fletcher also started the leprosy work in Taegu in 1913,

first sheltering about a dozen of these outcasts of society in temporary quarters near our hospital before moving to the present site of Ae Rak Won in 1916. One of my early recollections in the hospital was the problem that we had with laundry. It was done in a little out-house behind the hospital, all by hand with scrub boards and mostly with cold water. In the winter the hardship and suffering of those who worked there was especially intense and my heart ached for them. Much of the laundry was hung up on trees and bushes to dry, but if a sudden rain sprang up everyone who could leave their work had to rush out to pull it in. The first big gift that we received from Mr. and Mrs. W. Clement Stone, our greatest benefactors through the years, was for modern laundry equipment! Mrs. Moffett and I count it a great privilege to have been so closely associated with Dong san Hospital through these past 41 years, and our continuing prayer is that God will keep it on course, true to the founding purposes, in helping those in need with the best possible medical care and in witnessing to them and to the Korean people of the love, compassion, and saving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사진으로 되돌아 보는 『동산 90년』

◇..... 1899년 10월 1일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파송한 의료선교사 Dr. Wood Bridge Johnson에 의해 이곳에 제증원을 설립하고 예수그리스의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뿌린지가 오늘로써.....
 ◇.....어린 9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수많은 선각자들의 설립이념구현을 위한 숭고한 정신과 희생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본원은 국내 의료계의 최전두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 오늘날 고도의 의술을 인술로 배출어.....
 ◇.....육신의 고통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함께 구원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한세기를 마무리해야 하고 또 세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야 할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선 오늘날의 우리 동산.....
 ◇.....인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항상 인식하면서 역사속에 자랑스런 동산인으로 남기를 우리 또한 주저하지 않아야겠다. 이에 90년을 달려온 동산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있는 선각자들의 자취를.....
 ◇.....하나 하나 뜯어내어 보고 고고히 흐르는 동산의 숨결과 맥박들을 이시점에서 다시한번 느끼면서 동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동산의료·선교역사』 계승·발전의 소명을식을 재우장 해 보고자 『동산 90년』.....
 ◇.....을 사진으로 엮어본다. (편집자 주)

▶설립당시의 본원직원(뒷줄 가운데가 초대원장 Wood Bridge Johnson, 삿갓 쓴 분은 서자명 전도사, 그옆이 간호원 Miss Cameron, 오른쪽 끝이 Mrs. Johnson, 나머지는 조수)



▶태중으로 다시 지은 두번째 병원(1903년 신축, 1906년 준공 지금의 본원 위치)



▲1921년 조직된 전도회의 초창기 무의촌 진료 광경(의사·간호원 구경에, 그리고 진찰을 받기 위해 아우섬이다)



▲1923년도 직원일동(가운데가 A. G. Fletcher 원장, 그옆이 클라라 햅백 간호원, 2열우끝 서상훈, 2열중간 수염진 분이 박덕일 목사)



▲1933년에 신축 완공된 병동(지금의 구부동으로 당시 80병상, 그전까지는 약 30병상 운영)

▶당시에는 앰블라스가 없어 돌것으로 환자를 수송했다.



▶제2대 원장 Archibald G. Fletcher(1911년~1941년, 사진은 애락보건병원에서 부인과 함께)



▲1924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관 병동('67년 6월 철거)



▲1937년도 간호원일동(키 큰 분이 클라라 햅백 간호과장-동산간호학교 창립자)



▶회진중인 W. B. Johnson (1899년~1910년)



▲1899년 설립 당시의 동산의료원(당시 제증원으로 약전골목 제일교회 내에 위치)

▼1942년 일본인 원장시절 직원 일동(좌로부터 이병화 서무과장, 심현 원장비서, 최3? 회계과장, 서상훈, 배정원, 김주태(외과의), 증전훈 원장, 황용운, 아마모도 사무장, 나까 무라 산부인과장, 문영복, 이근수 최14? , 변홍수, 2열좌 1 김원석, 최6 장경애, 우1 유순애 간호과장, 우3 석태욱, 우5 이강식)



▶1942년 일본인 원장시절 직원 일동(좌로부터 이병화 서무과장, 심현 원장비서, 최3? 회계과장, 서상훈, 배정원, 김주태(외과의), 증전훈 원장, 황용운, 아마모도 사무장, 나까 무라 산부인과장, 문영복, 이근수 최14? , 변홍수, 2열좌 1 김원석, 최6 장경애, 우1 유순애 간호과장, 우3 석태욱, 우5 이강식)



▼1957년 외래진료소 준공직후 본원 전경



▲현재 본원은 50,009㎡에 788 병상을 보유하고 1,400명의 교직원들이 수고하는 한강이남 제일가는 의료원으로 큰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응급병동 준공(1979년 8월 11일, 560병상으로 증설)



▼의학교육의 전당 의과대학이 꿈틀거리고 있다('82년 7월 준공)



▶초창기에 건립되어 병동, 수술실, 간호학교 등 다양하게 사용된 건물(1967년 철거)



▲1967년 동산간호전문대학 준공 직전 본원 전경



▲개원 80주년 행사가 어제 같은데...



▼동명동(암치료센터, 신장병센터, 중앙집중치료부, 중앙수술부, 서3병동) 건축당시('87년 1월, '87년 7월 준공)

▶본원의 전공의 제도는 1948년도부터 시작되었다(사진은 1955년 여자 의사 인턴 수료식 광경)



▲남명동 엘리베이터 건물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1967년 6월 준공, 300병상으로 증설)



▲지금의 외래진료소 준공일남(1970년 9월 26일)



▲최신 의료장비 도입에 본원은 항상 앞서갔다(사진은 '80년 4월에 가동된 SOMATOM II, 현재는 SOMATOM-DRH 및 MRI를 보유)



▼의과대학은 의사국가고시 3년 연속 전국수위 합격을 이라는 대위업을 달성했다.

■머릿말

혈뇨는 신장 및 요로계 질환의 중요한 증상의 하나이다. 혈뇨가 발견된다는 것은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당혹감과 근심을 안겨다주는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초기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이러한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 혈뇨생성의 근본기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하며, 감별진단 그리고 논리적이며 비용절감적인 안전한 진단과 평가법에 대하여 마땅히 익숙해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요침사가 응어리지지 않고 무색이며 일정하게 계속될 때 가장 좋은 요이며...만일 적색을 띠면 그 질환은 더 오래 끌 것이며...요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색이 검고 진하다.』라고 하여 요의 성질과 질환의 유무 및 경과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혈뇨는 원인 병소에 따라 신질환에 의한 신성(renal)혈뇨(사구체성 혈뇨와 사구체외성 혈뇨를 포함)와 신외성(extrarenal) 혈뇨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혈뇨의 경과에 의하여 급성 사구체신염의 경우와 같이 수 개월 이내 없어지는 급성 혈뇨와 만성질환에서 볼 수 있는 지속성 혈뇨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신질환의 증상 및 징후인 부종, 고혈압, 단백뇨, 배부 또는 복부의 통증, 권뇨, 빈뇨 그리고 배뇨통 등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후성 혈뇨가 있으며 반면 증상이 전혀 없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무증후성 혈뇨도 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혈뇨 역시 원인 질환의 빈도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이 특징이

혈뇨는 철저한 조기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신실질의 손상을 가져오기전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하며 악성질환의 경우 생존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서 성인과 소아기로 나누어 생각하고 소아기에 대해서는 따로 부연하여 혈뇨의 평가에 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혈뇨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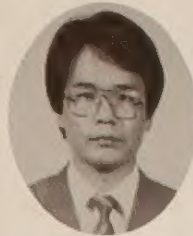
혈뇨의 정의는 요에 나타나는 적혈구의 수를 기준으로 말하며 보통 성별에 관계없이 신장노 10ml의 원뇨중 적혈구 수가 고배율 현미경시야에서 3-5 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혈뇨와 감별을 요하는 소변색의 원인

대사산물에 의하여 또는 열매나 음식물의 색소, 약제 및 식품첨가제의 색소 등에 의해 혈뇨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출생후 얼마까지에 흔히 기저귀에 분홍색을 띠는 요산염은 풀이되면 없어진다. 정상노색으로 배설되지만 편선에 노출되어 붉은색으로 변하는 포르피린증, 빠른 용혈이 있을 때 발생하는 혈색소증 및 부상, 전기성 속, 심한 운동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근육글로불린뇨증 등도 감별을 요한다.

■신성 혈뇨와 신외성 혈뇨의 감별

혈뇨의 원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신성 또는 신외성의 감별이다.



박철희 권위강사 (비뇨기과학)

육안적 혈뇨는 쉽게 발견되며, 출혈정도와 요의 산성도에 따라 색조가 변하지만 일차적으로 신성은 갈색, 신외성은 분홍 또는 붉은 색이 된다. 현미경적 혈뇨는 직장, 학교검뇨 또는 다른 질환의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시험지법(dipstick)으로 혈뇨가 나타나면 다음은 원뇨의 현미경 검사를 해야하며, 이때

발성 혈뇨증이라 칭하기도 한다.

■소아의 혈뇨

빈도는 사구체질환이 가장 많으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사구체신염이다. 연쇄상구균성 상기도감염 후에 발병하는 급성 사구체신염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반복성 혈뇨, 자반병성 신염, 그리고 막성 신염 등이다. 사구체질환의 다음으로는 요로감염증 및 급성 출혈성반관염, 선천성 요로계 기형, 그리고 외상등의 순이다. 약 또는 화학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특히, 신생아에서는 소아 연령과는 달리 그 원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발수중에 의한 급성신부전증, 급성세뇨관 괴사, 신장매혈전증과 다낭성, 수신증, 요로감염증, 복부종괴 등에서 볼 수 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병력과 이학적 검사가 중요한 사항으로써, 신질환에 관한 가족력 및 과거력, 전신질환 또는 선천성 기형유무, 외상유무, 최근의 상기도감염의 여부, 혈뇨의 정도, 출혈빈도, 지속여부 및 동반된 증상 등의 병력이 필요하다.

■맺음말

혈뇨는 신성 또는 신외성, 육안적 또는 현미경적, 증상적 또는 무증상적, 일시적,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빈도를 달리하는 혈뇨의 원인질환들은 너무 다양하여 여기에서는 다만 개괄적인 것만 언급하였을 뿐이다. 가능한 한 조기에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신실질의 손상을 가져오기 전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하며, 악성질환인 경우는 생존율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조기 검사를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90년의 발자취

고(故) 정재홍 교수 약력

Table with columns for institution (e.g., 대구동산기독병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date, and description of events or achievements.

- 약력: 경력, 학력, 주요요직 및 포상, 저술활동, 동산경력 및 산력(山歴) 등.

동산의료원 개원 90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 8:7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동방의 의인 욥이 지녀와 재산을 하루 아침에 잃고 그 몸이 병까지 얻어 변민과 고뇌중에 있을 때 그의 친구 수아 사람이 빌다익 찾아와서 욥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욥기 8:5~7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경직하면 하나님은 너를 돌아 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1989년 10월 미국인 선교사이며 의사인 장인차(Dr. W. B. Johnson)씨에 의해서 자그만하게 시작된 제정원이 9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임원환자 침상수 788개, 하루에 외래를 찾아오는 환자수 약 1,500명, 그리고 약 1,400명의 직원

말씀과 치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8:5~7)

387명의 의과대학생, 239명의 간호전문대학생이 바빠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거대한 의료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시작은 미약 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증해 보여 준 것이란 말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소로 시작하여 대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특색입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로 시작하여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막4:30~32)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밝혀 주신대로 세가지의 선행조건 ①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욥8:5) ②전능하신이에게 빌고(욥8:5) ③청결하고 경직하면(욥8:6)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세가지의 약속과 축복 ①하나님이 돌



이명학 원무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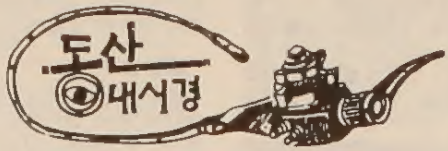
아보시고(욥8:6) ②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며(욥8:6) ③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욥8:7)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료원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한강이남에서는 손꼽히는 굴지의 의료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앞서간 선배 직원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의 결실인 줄 압니다. 이점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는 오늘 동산의료원에서 근무하는 1,400명 직원들의 믿음과 열정이 앞으로의 100년 아니 200년 후의 동산의료원의 발전과 번영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온 직원들은 개원 9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앞날도 우리 의료원을 돌보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앞날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의료원이 명실공히 기독교의료원으로써 조금도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 제일의 의료원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 아멘.



▲해외연수 및 학회참석

◎강진성 학장, 한기환 조교수 (성형외과)터어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국제성형외과 학회 참석, 연제발표 및 좌장차 지난 9월 4일 출국, 9월 14일 귀국.

◎송홍석 조교수 (내과)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5차 구라과 중앙학회 참석차 지난 9월 2일 출국 9월 10일 귀국.

◎최규택 조교수 (마취과)미국 Ft. Lauderdale, Gainesville, Florida 에서 The Anesthesiology Boards Review Course 참석 및 소아마취의 최근 경향 파악차 지난 9월 4일 출국 9월 17일 귀국.

◎김기식 조교수 (내과)미국 보스턴 Mass General Hospital 및 로체스터 Mayo Clinic 에서 국제 심초음파학회 참석 및 승모판 협착증의 풍선판막 성형술 연수차 지난 9월 4일 출국 9월 21일 귀국.

◎이광숙 부교수 (흉부외과)미국 메리랜드 발티모아에서 개최된 Current Controversies & Techniques in Congenital Heart Surgery 참석차 지난 9월 7일 출국, 9월 20일 귀국.

◎이용오 교수 (치과)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참석차 지난 9월 19

일 출국 10월 7일 귀국예정. ◎윤성도 부교수 (산부인과)호주 New South Wales 대학의 의학교육 Short Course, Teachingskill 에 관한 연수참석차 지난 9월 22일 출국 10월 6일 귀국예정.

▲신규재용

김호정, 김경희, 손태숙 (간호과)이상 3명 10월 1일자.

▲퇴직

신순옥 (간호과) 9월 24일자 안묘환 (간호과) 9월 30일자

▲순직

계명대학교 개교35주년 기념 『히말류리 동정대 1989』 대장으로 등정중 과로 및 고소증으로 내발현지시간 1989년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순직



계대동산산학회

· 10월 21일 천황산(표층사-재약산) 남문수위실, 13:00

◆도서관 소식

◎계명대논문집 제8권 제2호 원고 마감일이 10월 31일입니다. (종설은 편집위원장과 상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 하반기 잡지가 제본정리 되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소 초청강연회

· 9월 21일(목) 오후 7시 3층 강당 박찬규 교수 (연세대의산부인과) 「Adjuvant chemotherapy for the treatment of cervical cancer」

◆동우회 월례회 및 특강

· 일시: 9월 29일(목) 오후 3시 30분
· 강사: 서수지 교수(진단방사선과)
· 주제: 각종영상진단방법비교 (초음파 CT MRI)

◆의대 학생 재풀안내

· 10월 4일: 황기석 박사(가톨릭병원)
· 18일: 이성형 교수(고신의대)
· 25일: 허광덕 박사(가톨릭병원)
· 11월 1일: 박명술 목사(대봉교회)
※오전 10시 30분 5층강당

◆의과학연구소 초청강연회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의대강당
· 강사 및 연제
1. Dr. Astrid Bühren (Institute of Humangenetics University of Saarlands, Germany) 「Turner's Syndrome and the organization of self-help group for patients and other sex chromosomal disorders」
2. Dr. Marille Herrmans (Institute of Humangenetics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Cytogenetics in thyroid tumor cells」

새벽



황국향 간호조무사 (흉부외과중환자실)

커튼을 내린 창은
줄리웃들 기지개를 켜고

소리 없는 잔잔함
형용할 수 없는 푸르름 속에
아침이 열리고 있다.

나를
투명 시켜보자.

말쑥한 모습으로
정갈한 타자위에

나를
담은 한 권의 책을 두고

잠 못 이루는 이불 한 자락
꿈틀거리는 어린 욕망을
바람처럼 잊어버리자.

그리고

밝아오는 새벽앞에
내 존재의 의미를 그려보자.

「동산의료원 90년사」 사료를 찾습니다



▲ 1959년 제21회 동산간호학교 졸업식후 (1일 우 끝 유순애 교장, 3일 우 5 김정선 간호과장)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이나라 의료계의 선두에서 고도의 의학을 인술로 베풀어 인간생명의 존귀함을 몸소 실천하면서 육신의 고통과 인간의

영혼을 함께 구원해 온 지가 1989년으로 9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그동안 역사를 정리해 주는 이렇다할 기록이 없었으니 아

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에 역사적·시대적 사명 의식을 통감하고 의료관계 사료 및 선교관계 사료들을 발굴·집대성하여 90년 전통의 뿌리를 찾아 보고 「100년사」 발간의 기쁨을 마련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산인들에게 자긍심과 신임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빛나는 동산의료 선교역사의 계승·발전을 위해 「동산의료원 90년사」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원을 아끼시는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사료들을 기증해 주시면 「동산의료원 90년사」 발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집대상: 의료 및 선교 관계 사진, 기록, 출판물, 유품, 기타. ◎제출처: 기획예산과

신규약품 소개

URAFUR CAP

일반명: Tegafur 100mg uracil 224mg
효능, 효과: 1. Thymidylate synthase를 억제함에 의한 D. N. A. 합성저해.
2. FUIP의 RNA 합성에 의

신장비 소개

■혈소판 응집능 검사장비 (Platelet Aggregation Profiler®)

가장 빈번한 출혈성원인중의 하나가 선천성 또는 후천성 혈소판기능 결핍으로 인한 응집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 RNA 기능장애.

위암, 유암, 결장, 직장암, 간장암, 담낭, 담관암, 췌장암, 폐암의 증상완화.

특기사항: Uracil을 첨가함으로써 인산화 및 분해효소에 대한 5-fu와 Uracil의 효소학적 차이에 의해 5-fu의 분해를 억제하여 특히 중앙조직에서 5-fu와 2인산화 활성 대사물이 고농도로 유지된다.

■자동혈구계산장비(H-1®)

자동혈구계산 장비중 최첨단의 장비로서 백혈구백분율이 검사되며 백혈구 모세포의 분포도 파악하며 또한 면역검사중 임파구 아세포군의 검사도 가능하다.

이 장비는 설치후 정상근무시간에만 가동시킬 예정이므로 앞으로 백혈구 백분율을 CBC와 함께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에 의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x 17, Taebaek

Kangwondo 235-600 R.O.K.

Sept. 17, 1989

(Sunday in the 8ve of Tabernacles)

Dear Ben and Liz (Copies for Jill and Clare)

Please excuse typing mistakes. I didn't have time in Hong Kong to get ribbons for my Smith-Corona, so I am using the office machine. It's Sunday, and I just got home Friday and spent most of Friday and Saturday in bed. The trip to Peking and Pyenyang was about as emotionally draining as anything I have experienced in a long time. I had a lingering cough (very unusual for me, to begin with), when I left and it deprived me of enough sleep to keep me below par, physically, (at one or two points I was unusually conscious of the weight of my bag) and the schedule was about as full as it could have been.

The primary purpose of the trip was to lecture at the Central Institute of Nationalities in Peijing. This is a university-level college for the 55 minority nationalities in China, including Mongols, Koreans, Tibetans, Kirghiz, Uzbek, etc. As you all know, I studied Turkish, in order to be a missionary to the Uzbeks, Tadjiks, Kirghizi, etc. in Sinkiang Province, as their languages are basically Turkish. That is where the Turks originally came from before the Ottomans invaded Asia Minor and settled down in what is now called Turkey.

A Korean-American, Dr. Kim Ja-yon, who is sort of a lobbyist by profession, has been working with this institute. She has visited Jesus Abbey and arranged for me to have the chance to lecture there. In the end, due to the recent troubles, it was not possible to hold a student-body meeting, and I ended up lecturing to a group of 14 faculty. My interpreter was not connected with the institute, however. He was Prof. Tang Yi, Chairman of the Christianity Section of the Institute (Research Center) of World Religions of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Now I doubt if there is any more prestigious outfit than the Academy of Science—excuse me—Academy of Sciences,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re was no way to know this man isn't a Christian. We just got along beautifully. I felt (and Dr. Kim, too) that he did a superb job of interpreting my 2-hour lecture on "Christianity--returning to its roots." We also had time together with these various people over meals, and Prof. Tang spent some time with Dr. Kim and me making some tentative plans for a world conference on Christianity, to be sponsored, not by the church, but by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China in 1991.

One of the other people I met was a Prof. Mu from the Institute of Nationalities, whose special field is "Taoism (read: shamanism)" and he was from Chefoo and, if I am not getting mixed up, studied at Cheloo in Tsinan. We had a lot in common and hit it off beautifully. I also met a member of the Dai family, Prof. Dai Kangsheng, who is Deputy Director of the Inst. for Research on World Religions. His wife is going to McCall School of Theology in Chicago...

Time out for tea with 2 girls who are seriously thinking of taking simple vows. Both are quite mature and ha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just the types I have had in mind. There is a third who is interested, but they have told her to hold her fire until she has completed her first year novitiate. Well, that wasn't tea-time, that was a 1-hr conference (with Mom). Then after 4 o'clock, Bob and Anne came in and Abel Yin. Ben, you'll remember Abel. He was our first construction team captain, lived with us in the tent. He is now living in Houston, has been in construction work all these years (building nuclear plants, among other things--he says they are now a thing of the past--and now wants to get involved in missions some way. It's now 5:20 and Mom is showing him the Gingerbread Schoolhouse and I am returning to my typewriter.

Jill, you've just GOT to find an excuse to visit Chicago and look up this gal Duan Qi () Mrs. Dai Kangsheng. These are sweet people, and I just know the Lord has his eyes on them and wants his love to flow out to her through you.

From Beijing I flew to Pyongyang. Since I had listed "tourism" as my motive, I got a guide who knew, but nothing, about nothing else. He explained that if I wanted to track anybody down, like the Anglican priest who said he was going to stay with the sheep and refused to leave North Korea during the war, I'd have to work through an entirely different agency. He was with me practically every waking moment. At dinnertime one day, a Zairean medical student (there were 3 of them at the hotel, getting ready to return home after completing their 7 year course. They had had one trip home in the middle.) started visiting with me, but the guide turned up and he left. I took all my meals by myself, although there were lots of foreign guests at other tables. Apart from the 3 Zaireans, I presume the others were from Eastern European countries, ~~but~~ I found out later that one was from Paris but, again, we never got acquainted.

I took pictures of the 4 landmarks that are left from old Pyongyang. The rest of the city was obliterated during the war, and is entirely new, with broad, straight streets. Addresses that I was asked to look up were all somewhere under the pavement. The only clue of the old location of Soongshil and PYFS was the Potong Moon, an old city gate (which I had forgotten). The guide hadn't a clue where Soong Sil or PYFS had been, but there was an old halmoni at church who offered to show us and they let her go in my taxi and show me. I took some pictures, but I'm not at all sure whether I'll be able to recall which was which after they are developed.

I tried to make a date with the pastor of the open church (there is one protestant and one Catholic) to talk with him on Saturday, but he declined and made a date for 4 PM Sunday afternoon. The lady from Paris came to church and gave a gift of a Bible and a hymnal and these were publicly acknowledge, and she was deeply moved. Couldn't speak a word of Korean. An elder from Canada was there, a Korean-Canadian, and his group had earlier given a \$3000 P.A. system (which worked very well), and it turned out that it had been largely due to his pushing that the church was opened and regular services started last October. He was allowed to lead in prayer. I was not even introduced. The pastor is 66, the newly ordained assistant is 50, was a catechist for 4 years, but so deeply tanned you wonder what he has been doing besides attending seminary and serving as a catechist. I didn't get to talk to him, at all. After the service I didn't see much shaking of hands between clergy and parishioners, although the people seemed to enjoy visiting among themselves.

I wondered what to do about the guide during our interview, and when we arrived the minister sat him and me down on one side of a large board room, and himself all the way across the room on the other side, but the guide said, "No, you all talk together, I'll sit over here," made the minister sit next to me, and then went across the room and fell fast asleep! We talked for over an hour, but it wasn't very exciting. He was just run-of-the-mill old-fashioned liberal theology, not even liberation theology. He did not offer to pray, but at the end I prayed earnestly for him to ge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e had met Simon Kim (the bishop of Seoul, at a WCC/conference in Geneva, when 11 delegates from North Korea attended, and they seem to be freely in touch with the WCC world and not interested in any other part of the Christian scene. He was more like a Yale or Harvard Divinity School graduate than one who had studied the same text books that had been used under Moffett and Underwood (only I doubt if he could have made the grade at any big time seminary).

He did give me some statistics on Christianity in North Korea. He said about 250 attend regularly at the church, mostly in their 30's to '60's. The older ones prefer the house churches. Maybe 300 or even 350 will turn up for a really special occasion. There are 30 registered house churches in Pyong Yang for a total of about 1000 registered Christians. They have a 1-hr Bible study either just before or just after the service, led by one of the faculty of theology. The seminary was reopened 17 years ago and is now training its 6th 3-year class. The assistant minister graduated in the 5th class. (Apparently only one class at a time). There are 500 registered house churches around the country, averaging 5 to 12 people each. At one point he said there were about 6000 Christians around the country. At another point he said 10,000. Maybe the latter figure is for the two organized churches plus all registered believers whether actively attending a house church or not. Or maybe the 6000 is Protestant and the 4,000 is Catholic. I didn't realize until later that my notes didn't quite jibe. He was much more at home talking facts and figures and trips to Geneva than he was talking theology or about spiritual matters. There was a pastor from LA visiting in town, but he was meeting with one of the house churches.

When Rev. Moon Ik-hwan, the pro-Pyong Yang Presbyterian minister from South Korea, visited last Easter, they got 350 out. Recently a college student from South Korea got herself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Games and was made a big thing of, as the only "representative" from South Korea (she did have a sponsoring organization, though not a sponsoring college). I happened to see two TV re-runs of her adventures. They seemed to be making it clear that they did not give her the idea of crossing back into South Korea at Panmoonjom, but rather, they spent 10 days trying to talk her out of it. She went on a 5-day hunger fast and then spent 3 days in hospital, but was determined to go through with it. There was an RC priest with her. It was not clear just what his role was, merely supportive or egging her on? When she would not be deterred, 3 or 400 students went down to Panmoonjom with her and cheered her and the priest across the line. They were arrested, of course, and now the South Korean papers are running the details of the trial. A North Korean agent who blew up a plane-load of South Koreans in Bahrain or some place like that, has asked for forgiveness and South Korean citizenship, and the picture in yesterday's paper showed them talking. Not everybody in South Korea wants to let this mass-murderer off, but she seems to have a better press than this girl strutting across the border and putting all the blame on South Korea for not negotiating in sincerity for reunification. It is heart-breaking to see so much negative propaganda and hate propaganda. How can you ever heal the wounds and reunite the nation going at it that way?

There weren't enough passengers to justify a plane on Monday, so I left at noon on the same train we used to ride as kids, from PY to Mukden. This time I was riding the cushions. We used to ride on hard triple-decker bunks, but this time I was in the Wagon-Lits car with a cushioned and Korean-mattressed lower bunk. Two young Chinese were in with me, on their way back to college in China. All the way from PY to the Yalu we passed rice-paddies, further along than the ones here in the South, ready for harvest. There were no visible country villagees, no one working in the fields. There was a fair amount of weed in evidence. Obviously there isn't the manpower to keep the paddies properly weeded. In a day or two (right after Autumn Moon?) the plan seemed to be to close down as much in the cities as possible and let the people go out and bring in the harvest. I saw one corner of one paddy where a few square yards had been harvested, but nobody was visible as we went by. Crossing the Yalu back into China took me back 55 years. It was less hassle than in the old Japanese days (especially when we kids had to look after a-dults, too, remember, Jill?). I slept through Manchuria and woke up somewhere around Tientsin. We got into Bayjing at 10:00 AM (22 hr trip), and my friends met me, meaning Kim Kee-sung of Stanford, an old J.A. hand, now in business in 北京. We went straight to th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World Religions, and

had (natch) a delicious Chinese dinner (not overdone). We had a good, long talk about the proposed world conference in 1991. Then back to the hotel, a good nap, and, in the afternoon we located an elderly artist, named Lucy Yao, who had taught oriental art for two years at Meredith College in Raleigh. I had been on the same plane with her when she was starting home for Peijing, and helped her find the Japan Air Lines desk in Chicago (at the absolute other extreme of the airport from where our plane from NC had landed) and I carried her two bags for her (she is an old lady of 76 (Chinese age, compared to my 73). We had a delightful visit with her, and she presented Kim Kee-sung with one of her paintings, as well as one to me, and also painted a calligraphy strip (4 characters: "White Pine Always Green," a wish for long life and good health) for me to get mounted on a scroll (or framed) when I get home. She lived in a tiny apartment, but it seemed adequate. I can't remember now, for sure--I was operating at the very edge of my reserves, physically, ment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but I think it was an ordinary apartment house, not a school or other institution. I don't remember discussing whether she had any family or not.

At one of the dinners I talked a little about "The Discovery of Genesis," the book about Chinese characters which tell the story of Gen. 1 to 10. There was considerable interest. There is a real potential for ministry but, oh, the energy and organization and wits required to put it all together!

I thought I was a pretty cold-blooded, unemotional type, but the welter of impressions--from childhood, from PY days, from Yenching days, from modern times, the ghastly goofs of the church through the centuries, the warm friendliness of the people, the ache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the grief at the sins of the church over the centuries and the opportunities kicked--it kept me in a state of turmoil and wanting to weep. My dreams were mixtures of interviews with this one and that one and I-don't-know-what-all, but showed how deeply involved I was at the subconscious level.

The last day in Beijing, Wednesday, the day before the Autumn Festival (Feast of Tabernacles), I gave my lecture at the Institute of Nationalities, to the faculty, with Prof. Tang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terpreting. I began, of course, with a blow-by-blow confession of the sins of the Christian missionaries from the Tang Dynasty to the Ching (Nestorians, Franciscans-and-Dominicans, Jesuits, Protestants, the Opium Wars and the Treaty Ports forcing Christianity, as it were, upon the country along with drugs, and the betrayal of the Tai Ping Rebellion. Then I got on with the positive, the very exciting roots of Christianity and Judaism up until the take over by the landlords under Constantine, and the struggles to return the church to the common people, the work of Hudson Taylor and the CIM, the current reawakened concern for the poor and for correct economic principles, and the Holy Spirit movement. All seemed interested, not least of all, my interpreter who still wants to work with me on setting up the 1991 conference, maybe over Tabernacles, in Fuxien, where there are more Christians than anywhere else in China. Pray that we can keep it at the academic, "scientific" level, and not let it be captured by the 3-Self Movement and the W.C.C. If the organized church gets hold of it, I doubt if I will stay with it. If it can stay in the control of these dead-in-earnest social scientists, I think the potential is tremendous.

After our meeting and the dinner that followed (fun, relaxed), I was taken out to the Old Summer Palace and Yenching. But they are not "out" anymore. The city has grown right up to them. However, those two areas have been preserved nicely. The Old Summer Palace, which was just a wilderness when I was at Yenching, where we used to go for moonlight walks because there was nothing else but fields and paddies in the country, has now been turned into a popular public park, and a little of the old architecture has been put back together (it

was was a weird mixture of roccoco western marble architecture) to give a hint of what it looked like before the Taipings blew it to bits.

The Yenching (now Peking University) campus is unchanged, except for what 55 anni Domini have done to it. It is generally in pretty good repair, and I could take snaps of my old room, Oliver York's old dorm, Mr. Lund's replica of the Tunghsien Pagoda that Dr. Luce had them make for a water tank (they didn't any of them know the history, that is, the folks who were with me, no doubt the university authorities know). There was the Mu Myung Hu, the pond where I launched our homemade boat that never got off the bottom (at the first try), and the simple marble boat that served as sort of a dock and place to sit in the moonlight, etc. As we drove away, we passed along the wall of the faculty compound and I got the impression it, too, had been preserved. I didn't know at the time, but some years later, when I read an article on Chinese gardens in Asia magazine, I realized that that had been a typical Manchu garden, all artificially constructed with hills, streams, ponds, etc. and landscape planting, so designed as never to let your eye see the enclosing wall, so you always felt you were right out in the woods. Each house was also so placed that it seemed to be the only little house in the place. They were actually, roomy, but seemed tiny and modest, lost in the woods.

Oliver York said that Stanford and Yenching were the world's two most beautiful college campuses, and it was a joy to see that Yenching (Peking U.) has been treated with affection and respect.

A few moments to myself at the hotel to catch up on intercessions and EP, a hot bath, and right to bed. Wow! On Ch'usok Day (Tabernacles) we just had time for breakfast, a bit of a QT, then off to the airport, off to Hong Kong with Dr. Kim Jayon, a close connection in Hong Kong (I had hoped to buy ribbons for my Smith Corona, but no dice), to Seoul, cleared customs, picked up my residence permit, taxi to Yong Deung P'o where Dr. Kim and I went our separate ways, on to Chongnyangni by subway, got an upper berth--a miracle, all the trains were packed, people had been in line for hours, there were specials also being run but even so they were sitting in the aisles and between the cars to get home for the day after Chusok if they couldn't make it for Chusok (it was a 4-day weekend)--then sat in a tabang until train time. Talked to Yancey twice on the 'phone and Bunny was able to come out, spend some time with me and see me off, but they wouldn't give her a platform ticket to carry my bag. Got to T'ongni at 5:30 and praise the Lord, got a taxi to the front door (it has been raining hard and the road is partly washed out, but the brothers had sanded it well and it wasn't slippery), and joined the family for morning prayer. I spent most of Friday and Saturday in bed, but took a couple of important interviews. We had a Tabernacles Mass this AM and, after a leisurely breakfast with Mom, Sammy, Bob, and Anne, I went back to bed! A couple more interviews today, Sunday, but I'm definitely beginning to come back. Writing this has been fun. I wanted to get as much down as I could before getting all hazy. Oh, the chief and one of his men from the Immigration Office in Donghae came yesterday to interview me (I had told Eliz. to call the local police and tell them I was prepared to answer questions--they showed keen interest in the trip before I left--but they seemed to feel the Immigration people (also Ministry of Justice) could do a better job. They were most pleasant and relaxed. We talked for 2 hours and they got away without a cup of tea, to my chagrin.

Well, I won't start another page! Love you guys heaps. I count on your prayers for the various projects (including a Religious Research Center at the Central Institute of Nationalities, which is Dr. Kim Jayon's special project). Pray for Abel Yin and a Luke Song (who was ^{buried} the day I left on the trip and is interested in seeing ^{Hagerth} ~~Hagerth~~ ^{Nazareth} ~~Copernicus~~ completed (1st floor in use, 2 floors to go).

THE KOREA KLIPPER

Vol. 47, No. 1

January, 1989

\$5.00

Editor: Katherine C. Hong
1420 Santo Domingo
Duarte, CA 91010
Tel: 818 - 358 - 6122

Don and Alice Irwin (169 Alvin Street, Waterloo, Ontario, Canada, N2J 3J7) are now back at their Waterloo address with the phone # 519-885-2148. They had been in an interim ministry at the New Hamburg address until the end of July, but the church was able to call a regularly appointed minister and the Irwins felt it was time to bow out.

They were delighted to have a visit this summer from George and Coffee Worth who make their annual trek to Kitchener to visit their son David and his family. In Sept. Bette and Pete (Oscar) Noss came by for a visit. They had spent 5 yrs in Korea, living in Inchon where they had been with an oil company. They were very active in Seoul Union Church, but are now retired in Arroyo, CA.

Early in November, the Irwins had dinner with Margie Moore who was visiting Jean (Ross) Morrison in Toronto. Fred and Alice Bayliss were also there. Because of their telephone number change the Irwins missed Jeff and Shirley Jeffery who were in Toronto for an Ewha event of some sort. Ruth Saunders retired from Korea this fall and also spent a few days with Don and Alice.

Family - Linda and Drew Markham are now proud parents of 2 girls: Liane and Tara - born less than a year apart - and they live in Edmonton, Alta. Judith and Manfred von Nostetz and their 2 sons spent a week in Sept. on their way from Malaysia to Islamabad, Pakistan where Manfred is the Canadian ambassador.

Kenneth and Ann Scott (542 Warren Wilson Rd, Swannanoa, NC 28778) Ken was hospitalized this past October for radical cancer surgery and we are grateful that the prognosis is good and we are told that he is back at his work with the State Division of Health Services.

Family - Oct. 26th, their 4th grandson, John Gordon Murphy, was born to Betsy and John there in Asheville. The proud parents have now returned to their home where Betsy has been working on her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at Johns Hopkins Univ.

Son, Ken, is in the US Embassy in Gabon as deputy chief of mission for an additional year, while his wife Norma (a Foreign service officer in her own right) and Audrey live near Washington and Thayer is finishing high school in Aiglon College in Switzerland.

Son, Charles, has been promoted to Chief Operating Officer/Administrator of St. Joseph's Hospital in Tampa. Charles and his wife Marjorie with their 3 children: Kathy, Michael & Brian, had a good visit with Ken and Ann this past summer.

Betty Jane Hunt (c/o Mrs. John Johnson, 502 S. Ouida St, Enterprise, AL 36330) can be reached during her present 4-month furlough at the above address. She is with the Korea Baptist Mission. Betty Jane was a volunteer translator at the tennis competition venue in the Security Office of the Olympics and later for part of the time for the Paralympics and it was her privilege to serve there for part of the time. She went back to the tennis competitions on the only day

of "wheel chair tennis". The players in wheel chairs did a lot better, she thought, than she could do with two good legs.

Bob and Lois Sauer (KPO Box 740, Seoul, 110-607, KOREA) were happy to have brother Charles Sauer "home" for 3 weeks last July. This was his first visit to Korea since 1958. Charles has recently retired from the English Language Institute of the Univ. of Kansas, Lawrence, where he has taught for 20 yrs. The Sauers were also happy to have daughter Carol and husband Michael LaCroix (736 E. Oakwood, Albemarle, NC 28001) and Andrew (5) and Rachel (3) as well as daughter Jean and husband Jim Wootton, (PSC #1, Box 26237, APO San Francisco, CA 96230) Jamie (9), Joy (5), and Gwendolyn (6 mo) visit during the summer. The Woottons were to be with Bob and Lois for Christmas. Carol's visit was the first in 15 yrs and the first ever for her husband. They hope to bring college students from Wingate College in N.C. on a winter tour in December this year.

The Sauers add that the Paralympics which followed the Olympics were also a huge success (Korea hosted about 4000 handicapped who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sports). The Paralympic flame was carried in by a one legged man with a crutch who ran part of the way around the stadium. The final lighting of the flame was done by a blind man. How wonderful that a growing consciousness of the needs and abilities for the handicapped in all parts of our world is evident. It grew out of efforts by concerned Christians, and much of the planning and support for the '88 Paralympics came from the churches.

Paul and Anne Winn (710 Alleghany Ave, Staunton, VA 24401) now live in a traditional town set in the foothills of the Blue Ridge Mountains. They found a house across the street from daughter Julia, whose husband pastors Olivet Presbyterian Church in Staunton. The local women's college, Mary Baldwin, has an exchange program with Doshisha Women's College in Kyoto where Anne taught for 17 years. They are rejoicing in welcoming Japanese students to their home and they hope to be helpful to them. Their phone # is (703) 886-6987.

Hallam and Helen Shorrock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3-10-2 Osawa, Mitaka, Tokyo 181, JAPAN) feel that this past year was one of the busiest and most stimulating years of his life thus far (he turned 65 last year). 1988 began with him part-time general secretary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ACUCA). During the same month, after working 1 1/2 yrs as special assistant for the president of ICU, he was appointed to serve on a concurrent basis as the first dean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Shorrock family planned a reunion at Lake Tahoe, CA, this past Christmas, their first Christmas family get-together since 1984, with the addition of 3 new grand-daughters since then.

Marie Melrose (12250 S.E. 61st St, Bellevue, WA 98006) has just been through the process of sorting through and packing 3-decades accumulation, completing all of what is involved in a final semester of teaching, saying goodbye, and getting home in time for Christmas at the above address where she can be contacted during her retirement furlough. She planned to be traveling in California this month